신동빈 회장 "팬데믹 안정화 이후 철저히 대비" 롯데그룹 사장단회의서 혁신·ESG 고려 강조

신동빈(사진) 롯데 회장이 2021년 화두로 '혁신'을 꺼내들었다.

13일 '재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화상회의로 열린 VCM(Value Creation Meeting, 구 사장단회의)에서 신 회장은 "위기 때 혁신하는 기업이 위기 후에도 성장 폭이 큰 것처럼 올 2분기 이후로 팬데믹이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혁신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과감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명확한 비전 제시, 과감한 투자, 전략에 맞는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각 회사에 맞는 명확한 비전과 차별적 가치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5~10년 후 회사의 모습을 임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권위적인 조직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CEO부터 변할 것과 비전·전략을 수립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것도 당부했다. 끝으로 "IMF(국제통화기금), 리먼 사태 때도 롯데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 DNA'가 분명히 있다"고 격려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ICT | 'CES2021'에서 공개된 차세대 기술·서비스

AI·전기차·로봇·홈코노미…"미래 세상 엿본다"

코로나 영향 사상 첫 온라인 전시
삼성 등 '미니LED' TV 경쟁 눈길
LG, 새로운 폼팩터 '롤러블' 첫 공개
인텔은 자회사 자율주행 기술 선봬

글로벌 전자전시회 'CES2021'에 공개된 다양한 신기술이 눈길을 끈다. 다양한 로봇 제품을 소개한 승현준 삼성전자 사장, 자율주행용 라이다 통합칩(SoC)을 선보인 암논 샤슈아 모빌아이 회장, LG전자 '롤러블' 스마트폰(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삼성전자·인텔·LG전자

11일(미국 현지시간)부터 열린 글로벌 전자전시회 'CES2021'에선 다양한 신기술이 공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참가사가 크게 줄었지만, 글로벌 전자·정보기술(IT) 업체들은 홈코노미 가전과 롤러블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등 차세대 기술과 서비스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TV 부문에선 '미니LED(발광 다이오드) TV'가 눈길을 끌었다. 100~200마이크로미터(㎛)의 매우 작은 LED를 광원(백라이트)으로 사용하는 TV다. 촘촘한 LED 배열로 기존 LCD TV보다 색 표현력과 명암비가 뛰어나 올해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백라이트로 쓰이던 LED 소자보다 40분의 1 크기를 구현해 더 많은 소자를 배치한 '네오 QLED'를 선보였다. LG전자는 86인치 8K 해상도 기준 3만 개 가량의 미니LED를 탑재한 프리미엄 LCD TV 'QNED'를 공개했다. 2019년 이미 미니LED TV를 선보였던 중국의 TCL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미니LED TV를 출품했다.

새로운 폼팩터(하드웨어 형태)인 '롤러블' 스마트폰 경쟁도 이번 CES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LG전자는 개발 중인 '롤러블'의 실물과 동작을 영상으로 처음 공개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태블릿처럼 커졌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담았다. TCL도 17인치 스크롤링 디스플레이와 6.7인치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소개했다.

완성차 업체의 참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모빌리티'는 올해도 뜨거운 화두였다. 인텔은 자회사 모빌아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내년 중 일부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이고, 2025년까지 인텔과 함께 라이다 통합칩(SoC)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소니는 자율주행 전기 콘셉트카 '비전-S'를 소개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인터내셔널과 '디지털 콕핏'을 선보였으며, LG전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향후 전략을 소개했다. 완성차 업체 중에선 GM이 한번 충전해 약 724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공개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차세대 기술도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물체 위치와 형태를 인식해 잡거나 옮길 수 있는 '삼성봇 핸디'를 처음 공개했다. 테이블 세팅, 식기 정리 등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이다. LG전자는 방역 작업을 하는 '클로이 살균봇'을 소개했는데, 가상인간 '래아'가 깜짝 연설자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 메리어트 호텔에 'AI 호텔' 서비스 제공

KT는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에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반 디지털 서비스 'KT AI 호텔'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AI 호텔은 투숙객이 기가지니의 음성명령을 통해 객실 조명이나 가전을 제어하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호텔로봇을 통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AI 호텔에 포함된 'AI 호텔 로봇'은 KT가 2019년 12월 선보인 AI 로봇으로, 공간맵핑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호텔 투숙객이 수건, 생수 등 편의용품을 요청하면 로봇이 찾아와 배달해준다. KT AI호텔은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의 190개 호텔형 전 객실에 도입된다.

김명근 기자

"부드러운 주행감 매력"…현대차, '더 뉴 코나' 2.0 가솔린 국내 출시

고객 의견 반영, 라인업 선택폭 넓혀
저공해차 3종…가격 1962만원부터

현대차 '더 뉴 코나' 2.0 가솔린 모델. 사진제공 |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더 뉴 코나' 2.0 가솔린 엔진 모델을 14일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더 뉴 코나는 지난해 10월 가솔린 1.6 터보 모델과 1.6 하이브리드 모델, N 라인을 출시한데 이어 2.0 가솔린 모델을 새롭게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더 뉴 코나 2.0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2.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를 탑재했다. 최고 출력은 149마력(ps)이며 공인 복합 연비는 13.6km/l(16인치 타이어, 2WD 기준)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연비와 부드러운 주행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부드러운 주행성능을 원하는 고객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북미에서만 선보였던 코나 2.0 가솔린 모델의 국내 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 뉴 코나 2.0 가솔린 모델의 가격은 스마트 1962만 원, 모던 2175만 원, 인스퍼레이션 2648만 원(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기존 1.6 가솔린 터보 모델 대비 약 70만 원 가량 저렴하다.

저공해자동차 제3종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 공영주차장 요금 50%(수도권 기준),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더 뉴 코나 2.0 가솔린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 뉴 코나 시승 및 구입 예정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용 방향제, 문콕방지 도어가드 세트 등의 차량용 아이템을 선물한다. 더 뉴 코나 출고 고객 중 현대 디지털키 앱 회원 400명을 선정해 비대면 세차 서비스인 '픽업 앤 세차' 이용 쿠폰도 증정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새해 소원 캘리그라피 써드려요" 르노삼성, 27일까지 새해 이벤트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닉시뇨라)가 새해를 맞아 27일까지 전시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서예)로 새해 소망 문구나 가훈을 작성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낸 고객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2021년 신축년에는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기를 함께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르노삼성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해 원하는 문구(30자 내외)를 영업사원을 통해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응모는 15일부터 가능하다. 접수된 문구는 화선지(70X30cm)에 전문 서예가가 각성하고 표구작업을 하는 등 10일 이내에 완성할 예정이다. 완성된 작품은 이벤트를 응모한 전시장에서 신청 고객이 개별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5			4	6			
		2				1		5
	4		2		5		9	
5		7		8		2		
9			3		1			4
		4		6		7		9
	8		1		4		3	
4		5				9		
			6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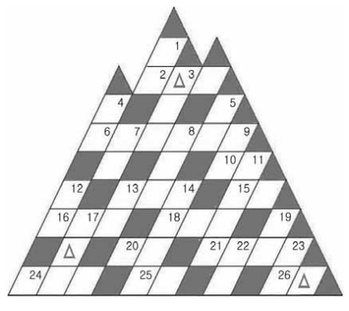
			1	5		7		
		7				8		
1	3			7	8		4	
		5		2				9
2		4	5		9	3		8
3				8		2		
	5		2	9			3	7
		1				9		
		3		4	6			

■ 스도쿠정답

8	5	1	9	4	6	3	7	2
6	9	2	8	3	7	1	4	5
7	4	3	2	1	5	8	9	6
5	6	7	4	8	9	2	1	3
9	2	8	3	7	1	6	5	4
1	3	4	5	6	2	7	8	9
2	8	6	1	9	4	5	3	7
4	1	5	7	2	3	9	6	8
3	7	9	6	5	8	4	2	1

9	2	3	7	4	6	1	8	5
4	7	1	8	3	5	9	6	2
6	5	8	2	9	1	4	3	7
3	1	9	6	8	7	2	5	4
2	6	4	5	1	9	3	7	8
7	8	5	3	2	4	6	1	9
1	3	2	9	7	8	5	4	6
5	9	7	4	6	3	8	2	1
8	4	6	1	5	2	7	9	3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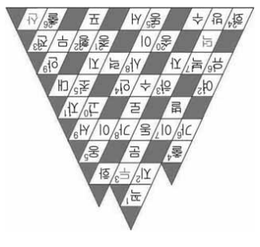


■가로열쇠

02.손에 물감을 묻혀 그리는 그림. 06.이렇게 할 만도 하고 저렇게 할 만도 함. 10.생식 기관이 불완전한 남자. 13.졸개 노릇을 하는 사람. 15.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함. 16.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 18.자갈이 많이 깔려 있는 땅. 'ㅇ력ㅇ' 20.꽃·눈 같은 것이 따로 된 한 덩이. 21.자유자재로 행동하여 거침이 없는 상태. 24.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물. '화ㅇㅇ' 25.자매의 남편끼리 또는 형제의 아내끼리의 호칭. 26.아기를 낳음.

■세로열쇠

01.그릇의 뚜껑 등에 붙은 볼록한 손잡이. 03.조선 건국을 반대한 고려 유신들이 살던 곳. 04.세속을 떠나 불문에 드는 것을 일컫는 불교용어. 05.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 07.서로 떨어짐. 08.거리의 미관을 위해 줄지어 심은 나무. 09.책을 보관하는 건물. 11.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12.물질적·공간적으로 넉넉한 상태. 13.옥의 얼룩진 흔적. 14.회사 등에서 직원의 지위나 근무 부서를 바꾸는 일. 17.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해 주는 곳. 19.음악에 맞는 춤을 만드는 일. 22.제멋대로 굴며 성질이 난폭함. 23.어떤 방면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아감.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푼 다음 △칸을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산 이름이 됩니다.